12강/ 신령한 것에 대해 알라 (고전12장, 14장)

오늘의 포인트)
1.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은사 문제를 다루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다.
2.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본다.
3. 성령의 은사를 구별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I. 고린도교회의 내적 문제: 은사

II. 은사 문제를 다루는 이유

1. 은사는 신령한 것이기 때문이다.(고전12:1 상반절)
고린도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존재했었다.(고전12:8-10) 그런데 바울은 은사에 대해 신령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바울이 은사를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은사를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사실 은사를 인간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은사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2. 은사에 대해 바르게 알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고전12:1 하반절)
바울은 이 신령한 것 즉 은사에 대해 바르게 알기를 원했다. 사실 은사는 고린도교회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은사라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설명할 수 없을 때 이것이 또한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해석이 벌어지게 된다.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특징
1) 본래 의도한 것과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때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선 다양한 은사를 그 사람에게 맞도록 허락하신다. 사람들에게 독특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신비롭게 여기게 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마다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된다. 잘못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 성경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해할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오늘날에도 은사에 대한 성경적인 사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2) 이리저리 끌려 다닐 가능성이 있다.(고전12:2)
고린도 시는 이방도시였고, 그곳의 사람들은 이방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모를 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우상을 섬길 때의 특징은 신에 대한 것을 모르니 앞에 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다니게 된다. 지금도 성령의 은사

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 다닐 가능성이 많다.
ex) 방언하는 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함으로 방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한 적이 있었다. 방언이 왜 일어나고 어떤 의미인지 모를 때 이렇게 나타난다.

III. 은사(Gifts)는 무엇인가?

1.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특별한 능력이나 힘이다.(고전12:11)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만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사만을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은사이다. 성령하나님은 은사만을 주시지 않는다. 성령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손에 이끌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은사들이다.

1) 구약에서 쓰인 용례
① 꿈 해몽 : 대표적인 것은 요셉의 꿈 해몽 그리고 다니엘의 꿈 해몽이 있다. 그러나 모든 꿈 해몽이 성령의 은사는 아니다.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성령의 은사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② 초자연적 지혜나 명철, 또는 지도력
아론이 제사장 옷을 지을 때 지혜의 영이 임한다. 서막을 지을 때도 지혜의 영이 임한다. 모세가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다.
③ 힘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것이다.

2) 신약에선 다양하게 나타난다.
① 고전12:8-10: 지혜, 지식,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통역
② 롬12:6-13: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등

2. 은사는 서열이 없다.(고전12:4-6)
은사를 주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기에 서열이 존재할 수 없다. 다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이 다른 은사보다 크다는 개념보다는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아야 한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경우는(고전14:1) 예언이 더 뛰어난 은사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덕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3. 은사는 다양하다.

성령은 누구에게도 제한되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체험될 수밖에 없다. 설교나, 강의나, 대화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를 일부에서 방언, 방언 통역, 예언, 병고침 등 일부에 제한 두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성령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은사는 아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일단 경외심이 일어난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교도에서도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5. 은사는 인간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마치 은사는 자신이 소유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함께 할 때만 나타난다. 오늘 병을 고쳐도 내일은 고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경우만 봐도 은사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믿는 이들은 언제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할 것이다.

IV. 성령의 은사인지 구별하는 방법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한다.

1.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고전12:3, 행2:36)
바울은 성령의 신령한 은사에 대해 고린도교회가 알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바울은 알기를 바라면서 은사(선물)에 대해 말하기 전에 “예수에 대한 고백”을 먼저 끌어온다. 이유는 바울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라고 본 것이다. 즉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다.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가? 행2:36에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2.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살게 된다.(고전12:7, 고전14:3-4)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라는 말을 한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도멘’이다. 이것은 ‘건물을 세우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심으로 공동체가 온전해져 간다는 것이다. 건물이 완성되도록 한다는 말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은사가 주는 유익이다.

공동체의 덕을 위한 것을 설명하기 예를 듣는 것이 방언과 예언이다.
1) 방언
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전14:2)
②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전14:4)
③ 방언은 유익이 없다.(고전14:6)
왜? 방언의 유익한 점이 많다. 방언도 성령이 주시는 것이니까 유익한 것이다. 그런데 왜? 유익한 점이 없다고 하는가?
첫째, 외국인이 되기 때문이다.(고전14:11) 즉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나를 외국인으로 취급하고 그도 외국인이 되는 것이다.
둘째,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고전14:14)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했기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 모른다. 분명하고 뚜렷한 고백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모르는 소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④ 교회의 성도들이 방언으로만 말하면 방언을 알지 못하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가 보면 미쳤다고 생각하게 된다.(고전14:23)

2) 예언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한다.(고전14:1) 이유는 단 하나이다. 공동체의 덕이다.
① 예언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첫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헤아려 말함.
둘째. 기독교에서 신탁으로 하나님의 뜻이나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미래의 일들을 맞추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 이때 미래는 인간의 일상적인 일들에 대한 것을 말한다.
성서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되어 있다. 약속은 미래를 담고 있다. 하나님은 미래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약속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시대에 외치는 자들이 예언자이다.
이것을 망각하면 자꾸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무당처럼, 점집처럼 그렇게 행세를 한다.

3.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다.(고전12:26-31)
바울은 어떤 은사든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하는데 그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기를 원했다. 교회가 하나 되고, 화해가 일어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증오가 사라진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다.
이것을 이루게 하는 것은 사랑의 은사다. 따라서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한다.(고전

14:1)

오늘의 적용점)
1.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보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된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2.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
3.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로써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한다.

나침반 바이블 BIBLE